

교 혼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 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 수운교보

• 발 행 인 : 총무원장 강 서 조  
 • 편 집 인 : 부총무원장 양 선 모  
 • 발 행 처 : 수 운 교 본 부  
 • 발 행 소 : 305-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403  
 • 창 간 일 :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 화 / 팩 스 : 042) 861-1771 · 862-9436 / 862-1772  
 • 인 쇄 처 : 삼성디자인기획 042) 221-3111  
 • 홈 페 이 지 : http://www.suwoongyo.or.kr

## 3월 1일

# 독립운동 희생영령·전물군경 위령제

# 유시극종 영가 위패봉안



3월 1일 (월) 오전 10시 본부 법회당에서 3.1절 독립운동 희생영령 위령제를 맞아 유시극종 영가를 향사록에 등재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현재까지 총 3,178위를 향사록에 등재하고 봉안하였으며 선망신도 및 전물군경에 대한 위령제를 봉행하였다. 특히,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위령제에 참배하여 수운교의 지역교회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영령들의 왕생극락과 전체교인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축

원한다고 하였다. 250여명의 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위령제를 맞아 유시극종 영가 42위(남자 21위, 여자 21위)를 향사록에 등재하고 위패봉안하였다. 이번 위령제를 앞두고 총무원에서는 영단의 봉안위패를 도위별로 재정리하여 단장하였다. 한편 이날 재단법인은 고등학생, 대학생 12명에게 황덕호 장학금 2명(200만원), 수운교 장학금 10명(500만원)을 지급하였다. ☺

## 금년의 표어 교인들은 가족처럼 교단일은 내일처럼



존경하는 수운교인 가족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직한 황소가 일 년 동안 땀 흘려 일구고 가꾸어 놓은 것들을 이제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호랑이가 결실을 맺고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호랑이를 짐승 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종족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교의 “자호” 호랑이는 그런 호랑이가 아닙니다.  
 용맹스러움은 교단을 위하여 앞장서 지켰으며 지혜로움은 교인을 위하여 베풀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룩해놓은 교단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용맹성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교인가족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성·경·신을 다하여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신 덕으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때 묻은 연장이 쓰기가 좋고, 가벼운 풍선이 높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잘 다듬어 아껴 쓰고 마음을 비우라는 뜻으로 깊이 또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규범을 세우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내 것이 아닌 타의 무엇을 취하고 규범을 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아니하므로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을 어긴 것이든 물건을 훔친 것이든 남을 모함한 것이든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 즉 양심을 속일 수 없으므로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 버립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훔친 것을 돌려주든지 잘못을 사과하든지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경전의 말씀을 인용해보면서 “작은 아슬방울이 곧 큰 망망대해의 물이요, 망망대해의 큰물이 곧 작은 물방울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남을 위하는 작은 마음과 정성이라도 큰 덕이 될 수 있으며 그 큰 덕 자체가 작은 선행에서부터 이루어져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인가족여러분!  
 금년에는 “교인들은 가족처럼” 생각하며 서로 아끼워하는 마음을 줄이고 서로 도우며 “교단 일을 내 일처럼”하여 모든 일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한다면 분명 천사님의 가호가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운강생 189년(2010) 음 1월 1일

수운교 총무원장 강 서 조 합장

## 근 하 신 년

수강189년 경인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경인년 새아침

총무원장 강 서 조  
 법사원장 이 찬 구  
 감리원장 김 석 주 합장  
 이 사 장 윤 병 록 합장

# 189년 본부정기총회 개최

## 5억9백만원 예산통과

1월 23일(토) 오후 1시 본부 법회당에서는 수강 189(2010)년 본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73명의 총회 정석수 중에 4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정기총회는 총 5억 9백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먼저 강서조 총무원장의 개회사, 박창희 교무부장의 교황보고에 이어 김석주 감리원장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김덕환 재무부장의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첫 번째 의안인 올해 주요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일반회계 4억5천구백만원 특별회계 5천만원 등 모두 5억 9백만원이다.

기타 안건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복지시설 건립의 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임시총회 실시후 결정기로 의결하였으며 「예탁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부동산을 매입하되 매입 절차는 삼원장과 이사회에서 대상지 물색을 조속히 추진하여 임시총회 의결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포덕성금 활성화 방안」은 계속 추진하되 동참인이 적으므로 전교인이 참여토록 권장하고 현재까지 수입된 금액은 의항에 따라 회사금으로 처리하여 불평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 4시 재단 사무국에서는 23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전년도 결산서와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였다. ㉞

# 강서조 총무원장

## 겨레얼살리기 운동본부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참석

강서조 총무원장은 2월 2일 오후 5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사)겨레얼살리기 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가 주최한 제8차 정기이사회 및 제7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종교지도자대회와 종교예술행사, 제7회 국제학술대회등이 논의 되었으며, 겨레얼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수운교 본부에 그동안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㉞



### 고/문/논/단



경인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총무원장, 법사원장, 감리원장의 3원장님과 임원제위와 각 지부장, 정위사 전국 동덕제위께서 불천사님의 자비가호로 내내 강령하시고 성경신으로 포덕에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조국통일의 진로

우리는 배달민족이다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물이라면 샘이 있듯이 우리는 조상과 시조가 있다. 언어, 문자, 의식 등 생활풍속이 같은 민족으로서 만년사의 환인, 환웅, 환검(단군) 삼성의 민족정통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켜온 신성한 대한의 성자신손이다. 즉, 단군천단을 모시는 신선도로 발전된 도덕문명의 대한이다.

그러나 성쇠흥망의 역사속에서 무도한 일본의 압박으로 36년간의 식민지배는 민족사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철천지 한이다.

세계전쟁에서 미·소의 승리로 다행이 일본이 퇴폐하면서 우리 대한은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미·소는 국권을 한국에 돌려주는것이 당연하거늘 마의 3.8선 장벽은 왜일인가? 강도를 잡았으면 탈취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이 당연하거늘 마의 3.8선 장벽이 왜일인가? 공연히 남북이 체제 다른 정권을 세워버렸으니 미·소 폐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6.25전쟁의 동족 상잔은 산천도 울었다.

미·소는 평화를 말하면서 한민족의 불행을 왜 몰랐을까? 미·소에 배운것과 얻은것이 무엇인가? 정도에 탈선되는 것은 역전이니 각성하기 바란다.

새세상의 제세주 수운천사 출룡자께서 말법세상에 구제중생의 일념으로 경신년 4월 초5일에 용담정에서 정관입정중에 천명계시로

영불선약을 받으시니 모양이 궁궁이라 하였다.

궁궁은 좌우배궁 중심에 나타나는 십자형이니 심승진리를 상징하며 대립갈등의 선천병 민족정신의 상실병을 치유하는 선약 비장의 단군천단이다.

수운교는 이 천단을 신앙대상으로 도솔천궁에 모셨으니 선천적인 불의의 모든 것을 이겨 이루지 못함이 없는 심승진리의 궁을정도이며 민족정신을 환거하는 민족종교로서 보국안민은 물론 광제창생하는 도실적인 지상천국이 성취되는 것이다.

궁을정도 발상의 우리조국은 4343년전 10월 3일 단군성조께서 3천리 금수강산에 단군민족중심으로 건국되었으며 단군천단을 모시고 민족정신의 한기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켜왔다.

고서에 의하면 9,200년전 사백력 하늘에 한신(一神) 이 천강하시어 환인천제(桓因天帝)라 하였다. 천제께서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밑의 파밀고원의 광역에 천산 천재 천민이라는 지상천국 이념으로 환국을 세우셨으니 수운교의 천국이념의 근원이며 환과 한은 통일이니 환국의 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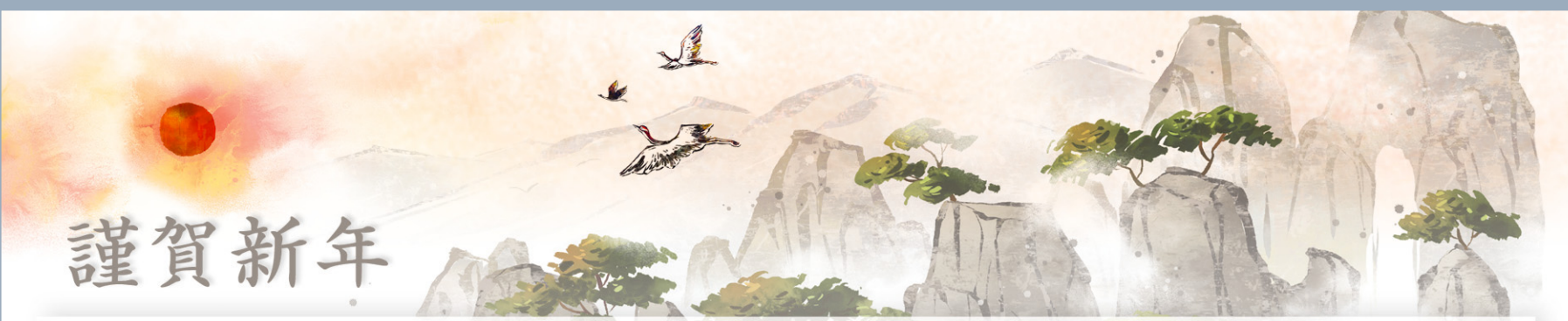
환인천제님은 9형제를 두시니 맏아들 환웅님은 부명(父命)으로 배달국 건설의 소원을 성취하시고자 태백산 기슭의 고목밑에 설단하여 치성하시니 신목(神木)이라 했으며 꽃갈을 쓰고 원형으로 도는 걸궁의 근원이며 수운교의 본부에서 기념행사때 선관선복으로 정대하고 원형으로 도는 궁을도행의 근원이다.

이와 같이 민족정신을 환기하는 민족의 단결로 성취되는 보국안민과 광제창생하는 포덕천하로 도성덕립이 되는 태평성대가 불원도래하는 것이며 조국의 통일도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1차세계 대전이 종전되면서 2차대전이며 유서에 다가오는 2024년의 계묘년에 핵탄의 비화낙지로 화염이 종천하는 3차대전은 온인류 불행의 최악의 전쟁을 어찌 할꼬

/5면으로 계속됩니다.

수운교 고문 불호자 문태규 합장



# 謹賀新年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교인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  
 하시고,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  
 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사 동덕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심동령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첫째, 우리는 천사님의 도법(道法)을 신앙하는 법사로서 수운교신  
 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겠습  
 니다. 둘째, 우리는 교단의 중추적인 교역자로서 포덕과 기도에 모범

을 보입시다. 셋째, 우리는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신앙인으로서 교단은 물  
 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동학 천도(天道)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  
 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천사님의 진리를 받들어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 속독 성취를 위해 성경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합니다. 사람이 맘을 흘려야 가을의 결실도 풍성하듯이  
 신앙생활도 기도의 맘을 많이 흘린 만큼 신앙의 열매가 커질 것입니  
 다. 이것이 천리(天理)이며, 천명(天命)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도반’이라는 신념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태주며 먼 길도 함께  
 달려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사원장 병호자 이찬구 합장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  
 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교인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 입어 교단의  
 크고 작은 사업이 큰 차질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감리원장인 저는 교단의 수  
 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을 살펴야 하  
 고, 재단법인의 감사로서 재단도 살펴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 입  
 장에서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집행부가 사업을 원만히 실행해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교인여러분!

동학의 가르침 중에는 하늘공경, 사람공경, 만물공경 이라는  
 삼경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님을 정성껏 공경하는 경천  
 (敬天)의 사상과 상하 귀천의 차별 없이 서로 공경하는 경인(敬  
 人)의 예의와 모든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활용하는 경물(敬物)의  
 정신을 항상 지닐 때 우리 인류사회는 보다 아름다워질것입니다.

교인여러분 우리가 경천, 경인 사상과 경물의 정신을 생각하  
 여 일심동령으로 수운교 신앙을 성·경·신의 자세로 정성껏 신  
 앙한다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  
 어질 것입니다. 거듭 경인년 한 해 동안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  
 행통하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리원장 공호자 김석주 합장



교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모  
 시고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백호의 해 庚寅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교인 여러분 모두 소원 성  
 취하시길 진심으로 천사님께 축원 드립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  
 를 되새겨보며 여러 가지 다짐도 해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신앙인의 다짐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운교의 신앙  
 은 몸과 마음을 다해 천주를 모시는 삶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모신다는 것은 내유신령 외유기화라 하셨습니다. 다  
 시 말해 모신다는 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동덕 여러분의 성원으로 도량이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부녀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회당이 새  
 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교인 동덕여러분, 해마다 우리 법인의 살림도 그 규모가 커 가고 있  
 습니다. 올해 세운 5억9백만원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 임원과 교역자가 일심동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희생적인 봉사가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삼대  
 원 성취에 진력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교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천사님께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이사장 은호자 윤병록 합장

## 근 하 신 년

수강189년 경인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 경인년 새아침

제주 감무원	원장	김 성 주	합장	제주 감무원	총무부장	오 형 범	합장
제주 감무원	감찰부장	김 석 보	합장	제주 감무원	재무부장	송 선 호	합장
제주 감무원	교도부장	오 동 구	합장	제주 감무원	지부장	일 동	합장



# 경 전

## 【龍潭遺詞】

용담유사

### 교훈가(敎訓歌)

- 경신년 지음 -

**5** 그럭저럭 할길없이 없는정신 가다듬어  
精神  
하늘님께 아뢰오니 하늘님 하신말씀  
너도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사람 동귀일체 하는줄을  
億兆蒼生 同歸一體  
사십평생 알았더나 우습다 자네사람  
四十  
백천만사 행할때는 무슨뜻을 그리하며  
百千萬事 行  
입산한 그달부터 자호이름 고칠때는  
入山 字號  
무슨뜻을 그리하고 소위입춘 비는말은  
所謂立春  
복록은 아니빌고 무슨경륜 포부있어  
福祿 經綸 抱負  
세간중인 부동귀라 의심없이 지어내어  
世間眾人 不同歸 疑心  
완연히 붙여두니 세상사람 구경할때  
宛然  
자네마음 어떻던고 그런비위 어디두고  
脾胃  
만고없는 무극대도 받아놓고 자랑하니  
萬古 無極大道  
그아니 개자한가 세상사람 돌아보고  
愷慈  
많고많은 그사람에 인지재질 가려내어  
人之才質  
총명노둔 무엇이며 세상사람 저러하여  
聰明魯鈍  
의아탄식 무엇인고 남만못한 사람인줄  
疑訝歎息  
네가어찌 알았으며 남만못한 재질인줄  
才質  
네가어찌 알잔말고 그런소리 말았어라  
낙지이후 침이로다 착한운수 들러놓고  
落地以後  
포래지수 정해내어 자아시 자리날때  
胞胎之數 自兒時  
어느일을 내모르며 격세만물 하는법과  
백천만사 행하기를 조화중에 시켰으니  
百千萬事 造化中  
출등인물 하는이는 비비유지 아닐런가  
出等人物 比比有之  
지각없는 세상사람 원한듯이 하는말이  
知覺 願

아무는 이세상에 재승박덕 아닐런가  
才勝薄德  
세전산업 탕패하고 구미용담 일정각에  
世傳產業 蕩敗 龜尾龍潭 一亭閣  
불출산외 하는뜻은 알다가도 모를러라  
不出山外  
가난한 저세정에 세상사람 한데섞여  
世情  
아유구용 한다해도 처자보명 모르고서  
阿諛苟容 妻子保命  
가정지업 지켜내어 안빈낙도 한단말은  
家庭之業 安貧樂道  
가소절창 아닐런가 이말저말 붕등해도  
可笑絕 崩騰  
내가알지 네가알까 그런생각 두지말고  
정심수도 하여서라 시킨대로 시행해서  
正心修道 施行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화 다던지고  
次次次次 無窮造化  
포덕천하 할것이니 차제도법 그뿐일세  
布德天下 次第道法  
법도정코 글을지어 입도한 세상사람  
法定 入道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것이니  
君子 無爲而化  
지상신선 네아니냐  
地上神仙

**6** 이말씀 들은후에 심독희 자부로다  
心獨喜 自負  
그제야 이날부터 부처가 마주앉아  
夫妻  
이말저말 다한후에 희희낙담 그뿐일세  
喜喜樂談  
이제는 자내들소 이내몸이 이리되니  
자소시 하던 장난 여광여취 아닐런가  
自少時 如狂如醉  
내역시 하던말이 헛말이 옳게되니  
남아역시 출세후에 장난도 할것이오  
男兒亦是 出世後  
헛말인들 아니할까 자네마음 어떠하고  
노처의 거동보소 묻는 말은 대답않고  
老妻 舉動  
무릎안고 입다시며 세상소리 서네편  
근근히 끌어내어 천장만 살피면서  
僅僅  
꿈일런가 잠일런가 허허세상 허허세상  
다 같이 세상사람 우리복이 이러할까  
福  
하늘님도 하늘님도 이리될 우리신명  
身命  
어찌알날 지낸고생 그다지 시키시고

오늘이사 참말인지 여광여취 저양반을  
如狂如醉  
간곳마다 따라가서 지질한 그 고생을  
늘로대해 그말이며 그중에 집에들면  
장담같이 하는말이 그사람도 그사람도  
壯談  
고생이 무엇인고 이내팔자 좋을진대  
八字  
희락은 벗을삼고 고생은 희락이라  
喜樂 苦生 喜樂  
잔말말고 따라가세 공노할 내아니라  
空老

**7** 그럭저럭 지내다가 통개중문 하여두고  
通開重門  
오는사람 가르치니 불승감당 되었던라  
不勝堪當  
현인군자 모아들어 명명기덕 하여내니  
賢人君子 明明其德  
성운성덕 분명하다  
盛運聖德 分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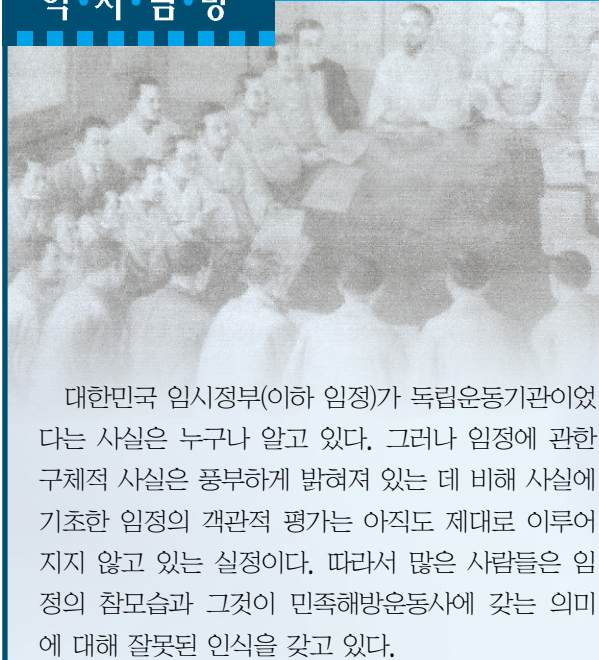
**8** 그모르는 세상사람 승기자 싫어할줄  
勝己者  
무근설화 지어내어 듣지못한 그말이며  
無根說話  
보지못한 그소리를 어찌그리 자아내서  
향인설화 분분하고 슬프다 세상사람  
鄉人說話 紛紛  
내운수 좋자하니 네운수 가련할줄  
運數 運數 可憐  
네가어찌 알잔말고 가련하다 경주향중  
慶州鄉中  
무인지경 분명하다 어진사람 있게되면  
無人之境  
이런말이 왜있으며 향중풍속 다던지고  
鄉中風俗  
이내문운 가련하다 알도못한 흉언괴설  
門運 凶言怪說  
남보다가 배나하며 육친이 무삼일로  
倍 六親  
원수같이 대접하며 살부지수 있었던가  
殺父之讐  
어찌그리 원수런고 은원없이 지낸사람  
恩怨  
그중에 싸잡혀서 또역시 원수되니  
조걸위학 이아닌가  
助桀爲虐

<다음호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역·사·탐·방

#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성립

(1919년 4월 13일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독립운동기관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임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풍부하게 밝혀져 있는 데 비해 사실에 기초한 임정의 객관적 평가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임정의 참모습과 그것이 민족해방운동사에 갖는 의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왜 임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었는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여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기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학문적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정 법통성’이 헌법에 규정됨에 따라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은 물론 임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마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는 처음부터 임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임정에 대한 평가도 한결같이 “임정은 3.1운동으로 표출된 자주독립의 의지가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독립운동의 총영도기관 또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했기 때문에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식의 평가가 공식적인 것으로 굳어졌다.

반면에 북한의 역사책에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

로 민족해방운동이 서술되어 있고, 임정에 관해서는 이에 언급을 하지 않거나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할과 위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임정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임정을 주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이 주체사상 등을 거론하면서 체제의 정통성을 내세우자 남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임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임정의 역할과 위치가 더욱 강조되었고 임정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한층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임정에 대한 정통론적 인식과는 달리 임정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도 나타났다. 즉 몇몇 연구자들은 임정의 상징적? 대표성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임정을 유력한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 파악함으로써 임정에 대한 종래의 편향된 인식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1980년대부터 민족해방운동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임정의 운동노선과 구체적 활동도 실천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하나의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임정을 민족해방운동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정통론적 인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운동 직후 거의 같은 시기에 노령, 상해, 국내

의 세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통일적?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지도기관으로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독립운동가들 모두가 정부수립에 찬동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여운형?이회영 등은 정부형태의 조직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여 ‘당’ 조직론을 주장하였다.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곧이어 전체 독립운동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다. 통합교섭은 실제적 세력기반을 갖고 있던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정사이에 진행되었다. 통합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정부의 위치 문제였는데, 노령측은 정부와 의정원을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령 또는 간도지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상해측은 정부는 상해에 두되 새로이 구성되는 임정원은 노령지역에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위치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외교독립론과 무장독립론이라는 독립운동 노선상의 차이를 일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결국 상해?노령 양측은 정부통일안에 합의하여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상해임시정부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상해임정은 출발 직후부터 임시의정원 해산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대한국민의회의 양대 세력 가운데 문창범계는 상해임정 참여를 거부하였고 이동휘계만 상해임정에 참여하였다. 결국 임정은 문창범계의 불참으로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말았던 셈이다.

- 노경채 수원대 교수 논문 발췌 /다음호에 계속

## 2면 고/문/논/단 이어서

### 조국의 평화통일과 십승국(十勝國)

우리는 배달민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단일민족의 궁지로 칠천만 동포는 정신을 차려야 국가민족과 우리가 사는 생문이다.

민족정신의 상실로 인한 외세의 사대사상 때문에 불행한 3.8선의 한일자(-)이며, 최남단의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과 최북단의 백두산 정상의 천지가 양수상합의 천리이니 위아래로 통할신자(?)형이 되니 미·소 폐권과 기만에 불만한 민족정신으로 한일자와 만나서 열십자이니 새 세상에 동서남북 중심의 십승국으로 빛나는 것이다.

수운천사출렁자께서 금병산하 청정한 용호도량에 도솔천궁을 세우시고 “지상에 도솔천궁은 개벽후 오만년에 처음이며 도솔천궁에 단군천단을 모시고” 그래도 우리집은 반만년의 대방가라 단기 유평중수하니 라고 하사 민족정신을 환기하는 민족종교임과 동시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결실의 궁을도덕이다.

유서에 신부지시구(神不知矢口)라 하였다. 즉 선은 알지 못할것이나 신은 미륵님 법상의 단군천단이니 단군민족의 궁지로 꼭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언에 우왕좌왕 하지말고 한발으로 다 모여라 하였다. 즉 한발은 대전이며 대전의 금병산 도솔천궁에 모신 단군천단을 중심으로 국가민족을 살리는 생훈으로 인도하는 지도사임을 깨닫고 지상천국 발상의 도솔천 내원궁의 선경으로 동참하실 것을 강조한 것이다.

수운천사께서 가사에 “임송병가는 과거지사이나 금재궁궁 전전도(壬松丙家 過去之事 今在弓弓 田田道)”라 하셨다.

임진난은 서기 1592년 4월 13일 일본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百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가 인솔한 15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역사상 가장 처참한 7년간 민족수난의 전쟁이었으며 소나무 성한 산중으로 피난한 사람은 무사했으며 송하지(松下止)운이었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은 인조 14년 1637년 12월 여진족(금나라 청국 지금의 만주)의 8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그때의 이상기변으로 흑한과 폭설로 침략군과 산으로 피난한 사람은 몰사했다고 전한다.

유서에 의하면 다가오는 2024년 계묘난(癸卯亂)은 우양의 상충하는 원자핵화로 화염이 충천하는 인류공멸의 전쟁으로서 십리일인견생도(十里一人見生圖)라 즉, 십리사이에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한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때에 생문은 궁을이니 옥지궁을지쳐 지재금구목토변(欲知弓乙之處 只在金句木兎邊) 궁을을 알고자하면 오로지 금구와 목토변에 있다는 뜻인데 금구는 해이며 목토는 달이다 다시 말해서 금단(金壇)을 중심으로 좌우에 일원을 모신 단군천단인데 민족정신으로 외세에 현속되지 않은 진정한 구국정신만이 생문업을 밝힌 것임을 깨달아야한다. 즉, 생문의 궁을정도는 단군천단을 신봉하는 종금(從金)의 도하지(道下止)이니 민족정신으로 단군천단을 모신 도솔천궁에 동참하는 것이다. 신부지(神不知)라 했으니 신은 단군천단이다.

유지각자는 생하고 무지각자는 망(有知覺者生 無知覺者亡)이라는 유서에 심사숙고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 본부·지부동정

## ☀ 해맞이 행사



189년 1월 1일 신도회 주관으로 금병산 운수봉에서 남녀교인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맞이 행사를 봉행하였다. 해뜨는 시각은 오전 7시 41분 날씨가 청명하여 찬란히 떠오르는 일출 시각에 새해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했다.

## ☀ 안내판 설치

대전시는 수운교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2월 2일 전체 안내도, 도솔천, 봉령각, 법회당, 용호당, 사무실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 ☀ 산제치성 봉행



총무원은 지난 2월 19일(음 1월 6일) 산제단에서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남녀교인 130여명이 참석 봉행하였다.

## ☀ 정기 감사 실시

감리원(원장 김석주)은 188년 정기감사를 1월 15일~16일까지 부감리원장 정기백, 감사부장 이상연, 심리부장 윤영진 등 4명이 188년도 교단의 재산관리와 재정의 입출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총무원은 1월 20일 유성구청 사랑의 열매 모금 행사에 윤병록 이사장, 교무부장, 재무부장이 참석하여 일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 ☀ 화재 및 도난 방지 설치

대전광역시시는 도솔천, 법회당, 봉령각, 용호당, 사무실 등에 도난경보 및 화재 감지기 설치를 착공하였다.

## ☀ 신도회 정기 총회



신도회(회장 박남형)는 1월 17일(음 12월 3일) 오전 11시 복지관에서 신도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신도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재현 재무의 결산보고, 감광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적오산 부인탑 복원작업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 ☀ 인등기도 입재 봉행



원은 950명이다.

총무원은 지난 2월 23일(음 1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에서 인등기도 입재를 봉행하였으며 동참인

## ☀ 수운교본부 부녀회 정기총회



수운교본부 부녀회는 지난 2월 21일(음 1월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이순 부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영순 재무의 결산보고, 홍을표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임원 선거에서 신입회장에 조양선 회원이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새 임원구성은

• 자문위원 : 박봉열, 김은택, 김입분, 손만순, 정이순  
• 부 회 장 : 이경례, 조병순, 윤옥희

- 총 무 : 김문영(정), 홍을표(부)
  - 재 무 : 박순분(정), 안남수(부)
  - 감 사 : 김기영, 박상분, 백용란
  - 간 사 : 최춘자, 정기숙, 김정복, 장시운, 박선례, 구순애, 윤옥순, 윤정숙, 이정문, 윤순옥, 이윤순, 오동예, 진순애
- 등이 맡기로 하였다.

### 단 신

\* 봉개지부(지부장 임상주)는 교인들의 성금으로 천법당 뒤 밭 250평(8500만원)을 매입하여 대지전용 허가를 얻어 묘사채 21평(7500만원)을 증축하고 산신각을 신축하였다. 또한 도량내에 창건주 비석 조성 및 조경사업 등 약 3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오는 4월 25일(음 3월 12일) 오전 11시에 산신각 낙성 및 창건주 비석 제막식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 생/활/의/지/혜

## 한방 봄철 건강관리

봄철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다. 움츠렸던 땅속의 기운이 땅위로 올라오는 시기이다. 한의학의 고전(古典)에 해당하는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는 이러한 봄의 기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봄철에 나는 나물들이 많이 있다. 특히 냉이, 미나리, 쑥이 흔하다. 냉이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 주기에 가장 좋은 식품이다. 성질 너무 차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으며 단맛이 있어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약이 된다.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생리불순, 코피, 산후출혈, 무기력한 노인들에게 좋으며, 밥맛이 없고 간기능이 떨어져서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도 좋다. 냉이는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들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냉이국은 특히 숙취에 매우 좋다.



미나리는 성질이 매우 차다. 그래서 술을 마신 뒤 열독을 풀어주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간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급만성 간염으로 인한 황달을 치료하기도 한다. 옛부터 민간요법으로 간이 안 좋을 때는 미나리와 당근을 갈아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 임상결과 간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효험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미나리의

찬 성질이 몸속의 열을 없애주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잘 보게 해서 2차적으로 간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간이 아주 나쁜 사람이 미나리를 먹으면 간기능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나리는 식욕을 돋우고, 미나리의 식물성 섬유가 내장벽을 자극해 운동을 촉진하므로 장의 활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해결된다. 그러나 소화기관이 너무 약하고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가끔 독미나리를 잘못 먹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독미나리는 식용 미나리와 달리 키가 커서 보통 90cm정도 된다. 평소 열이 많은 사람인 소양인 체질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부인병, 특히 자궁출혈을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임신 중에 무리를 하거나 피로하면 아랫배가 아프고 심한 경우 하혈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쑥을 달여 마시면 아픈 증상이 가라앉는다. 또, 추위를 심하게 타는 사람이 쑥을 오래 먹으면 추위를 타지 않고, 몸이 차서 일어나는 복통과 설사에 효과가 있다. 손발과 아랫배가 항상 차고 생리통이 있으며, 불임인 경우 쑥을 달이거나 고아 마시면 효과가 있다. 치질이 오래되어 피가 자주 나고 항문이 아플 때도 쑥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쑥은 대개 음력 3월초와 5월초에 잎을 뜯어 햇볕에 말리는데, 단오날 해뜨기 전 말을 하지 않고 뜯는 것이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고 한다. 성질이 따뜻하므로 몸에 열이 많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평소 몸이 찬 소음인이 먹으면 가장 좋다. 글 인터넷에서 발취

# 信仰逸話

## 임신년 겨울기도에 일어난 기적

임신년 十月 기념 후에 선생님께서 음 十一月 一일부터 三十六일 간 기도명령을 내리시니 정심주(正心呪)와 소례참(小禮參)으로 기도를 봉행하게 되었는데 불보살의 명호를 밝힌 이 주문 이 예참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소는 본부 국내는 도솔천단이요 지방에는 각 분관 교당이였다. 본부 국내에서도 혹 가정천단에서 기도하기도 하였다. 대천단에서 기도중 이번 기도는 일제히 천단에서 하라는 강령의 지시가 내려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점점 천단으로 모이니, 천단 대상에 좌석이 부족해서 대하여 밀집방석을 펴고 앉았으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광목으로 휘장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북풍은 몰아치고 백설은 분분한데도 이토록 추운 밤 세시간씩을 앉아 기도정진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강령강화(降靈降話)가 되었는데, 그때에 온호장 원용선(元用善)씨가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치면서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자책했다. 이 기도에는 각 지방으로 서신 통지를 통해서 각지로부터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황해도 평안도에서 많이 왔고 강원도 지방에서는 기도 중에 명령을 받고 천단으로 모여왔고 제주도와 기타 각지에서 많이 와서 남녀 二백여명이 되었다. 이때에 매월 초 一일, 十五일에는 선생님께서 기도한 제자에게 선자(善子) 첩지를 내리시니, 그 한 예를 들면 타공선자(善子) 방공선자(芳功善子) 등이였다.

지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두목의 보고에 의하여 선자첩지를 발송하니 전국을 합하여 六백여명이 되었다. 이 기도 중에 총호 김상주는 강서로 내려 일심동령(一心同靈)의 네글자를 혈서로 써서 선생님께 받치니 선생님께서 참 장한일이라 칭찬하셨고, 이양재(李養在) 모친은 주문을 읽다가 나무아미타불을 처음으로 외우니 다른 사람들은 저 부인이 허령이났다고 하였다. 또 어느날 아침에 양재모친이 천단 뜰에서 혼자 궁을도행(弓乙道行)을 맨 처음으로 돌고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부인이 허령이라하고, 이 사실을 선생님께 고하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도행이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선생님께서 친히 천단에 나오셔서 도행법을 가르치시니 이때부터 제자들이 매일 아침 도행을 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육바라밀 신을 신계하시고 검은 선복을 일제히 입게 하시니 당시 관청에서는 색의 장려를 시키는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때 조석을 꿇이지 못하는 교인에게는 김총호장이 피를 몇 말씩 나누어 주니 이 기도에 동참한 동덕님은 큰 기운을 얻어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정해수 전총무원장 일화중

##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사경에서 구출받은 이야기

제주시내 일도지부장으로 재임 중인 불호자 문태규(文泰奎)가 무자년(1943) 四,三사건 때 있었던 체험한 일을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불호자는 사·삼 사건 당시에 제주 화북2구에서 분관감사(현지부장)의 책임으로 있을 때에 법당에는 아미타불상을 모시고 있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사건을 진압하기위한 계엄군의 명령에 따라 화북리 주민도 제주시내로 소개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문불호자는 불상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내 동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부락사람들과 같이 열을 지어 들어섰는데, 한 군인이 앞에 나서서 양민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두줄로 서게 하였다. 이때에 문불호자는 원래 양민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건직후에 화북지서에서 부락민을 총집합시키고 양민과 비양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서장이 문불호자를 보고 “그대 동생은 어데갔어?” 하고 묻기에 “본산(수운교본부라는 뜻)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알았서 폭도가 있는 본산(한라산)에 갔다는 말이지?” 라고 한다. 문불호자는 당황하여 “그런게 아니라 중남 금병산 수운교본부에 갔다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나, “그만두어 변명은 소용없어!” 하며 양민증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불호자는 양민증이 없는 사람들 측에 가족과 같이 서있었다. 다음에 알고 보니 양민증이 있는 사람은 시내로 들어가게 하고 양민증이 없는 사람은 총살도 당하는 위험한 때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서있었는데 한 군인이 문불호자를 바라보고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기에 불상입니다 대답하니, 군인은 앞으로 다가와서 흰 광목으로 싸서 있는 불상을 손으로 헤쳐 보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군인은 옆으로 돌아서서 손수건을 눈물을 닦으며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오.” 하기에 문불호자 대답하기를 “저는 화북2동에 수운교 분관 법당의 암자에 살고 있습니다.” 하니 군인이 하는 말이 “나도 집에서 모친이 절에 참배하는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친께서는 나를 위해서 불전에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식량과 필수품보다도 불상만을 모시고 나온 스님이 폭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내가 증명서를 해줄 것이니 양민서 있는 줄에 서시오.”하고 증명서를 해주었다. 그리하여 문불호자는 가족 다섯사람과 같이 죽음의 행렬에서 삶의 행렬로 옮겨 서서 시내로 돌아와 무사히 생명을 보존했다. 그때에 소개한 천법당은 부락과 함께 불타 버렸는데 집에서 나설 때는 서말 가량의 쌀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자면 불상을 모실 수 없어서 불상만을 안고 나왔던 것인데, 자비하신 부처님 은덕으로 사경에서 다섯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이라고 문불호자는 말하였다.

-문태규 일도 지부장님의 일화



## 이름 없는 들 꽃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라도 맡아주면 고마우리!!!

홀로 핀 꽃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운 꽃은 더욱 곱다  
하늘아래 있어 새벽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박아 숨을 쉬니  
다시 더 무엇을 바라리오!

있는 것 가지고 아낌없이 꽃 피우고  
불어오는 바람 편에 내 말을 전하리라

찾아주고 보아 주는 이 없어도  
빈들 너벅하게 피는 것은  
한 평생 홀로 견딘 그 아픔에 비밀로  
비바람에 견디어낸  
미련 없는 까만 씨앗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들꽃 정이순

### 인·사·동·정

#### >> 총무원

- △ 봉령군대인 두호 김 선 기 (64세) 사회부장에 임명함
- △ 봉령군대인 오호 김 범 주 (60세)  
법사원 법사 면직하고, 사업부장에 임명함
- △ 학선군대인 효호 문 충 식 (48세)  
법회당 정위사 면직하고, 제주 일도지부 정위사에 임명함
- △ 봉령군대인 민호 최 재 봉 (66세)  
법사원 법사 면직하고, 도솔천 경위사에 임명함
- △ 봉령군대인 천호 김 승 천 (59세)  
도솔천 경위사 면직하고, 법회당 정위사에 임명함
- △ 학선군대인 상호 이 태 화 (63세) 봉령각 정필사에서 정위사에 임명함
- △ 학선군부인 이 미 경 (44세) 총무원 서기에서 서무과장에 임명함
- △ 법 광 주 여호 강 모 세 (56세) 시설과장에 임명함

(수강 189. 2. 1부)

#### >> 법사원

- △ 학선군대인 산호 지 재 현 (55세) 법사원 법사에 위촉함
- △ 학선군대인 윤호 김 영 기 (54세) 법사원 법사에 위촉함

(수강 189. 3. 1부)

### 계·시·판

#### 상반기 법회안내

◎ 식망치성기도 (음)	매월 1일, 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음)	매월 27일	오후 3시	법 회 당
◎ 수 련 기 도 (음)	매월 1~7일	오후 3시	법 회 당
◎ 법 일 (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 회 당
◎ 신 장 재 일 (음)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남문)
◎ 본부용왕기도 (음)	3월 3일		본부부녀회
◎ 조 왕 재 일 (음)	3월 30일	오후 3시	장 실
◎ 용 왕 재 일 (음)	4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 왕 재 일 (음)	4월 6일	오후 3시	산 제 단
◎ 탄 강 기 념 일 (음)	4월 15일	오전 10시	도 솔 천
◎ 위 령 제 일 (음)	4월 16일	오전 10시	법 회 당
◎ 인등기도100일 (음)	4월 20일	오전 10시	봉 령 각
◎ 영가함동제향제 (음)	5월 5일	오전 10시	공설묘지

〈문 의 ☎ (042) 861-1771〉

\* 포덕성금 (189. 3. 1. 현재) 67,008,215원 입니다.

\* 장학성금 (189. 3. 1. 현재) 3,374,395원 입니다.

### 특성금품쾌척

#### ◆ 도량 정화 사업(추가)

- 50만원 : 곽기중(본부) 문제운(본부)
- 30만원 : 최현규, 최현우
- 20만원 : 이상철(대곳), 최현주 · 최현중 · 최현두(본부)
- 15만원 : 박법균(대곳)

#### ◆ 일반희사

- 30만원 : 이상철(대곳)
- 20만원 : 채정현(일도), 문춘순(일도)
- 15만원 : 서정목(대구)
- 10만원 : 오미란(본부), 심팔임(공성), 김갑선(한동), 김전중(보령)
- 5만원 : 유만준(본부), 이일예(본부)

#### ◆ 물품희사

- 윤옥순 : 무선 음향기 1대
- 김태운 : 백미 80kg
- 고순녀, 윤옥희 : 양초 1상자
- 이덕례 : 찹쌀 20kg
- 이승용 : 감자
- 양성자, 현만원, 이태정, 부형수 : 밀감
- 김민철, 양보삼 : 한라봉

〈감사합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봉령군대인 김 영 보 환원 (兄 김석보 봉개)
- 학선군대인 김 승 명 환원 (子 김기현 본부)

### 장학 기금 회원 모집 안내

- 수운교 장학회 기금을 모금합니다 -

- 장학성금은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1구좌 매월 1만원 이상으로 모금합니다.(예 1만원, 2만원, 3만원.....)
- 입금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시킬 경우 예금주는 수운교장학회이며, (농협 453116-51-073975)입니다.
- 특별히 장학회에 관심있으신 분은 수운교 본부 총무원 ☎042.861.1771에 문의바랍니다.

### 포덕 성금 모금 안내

- 포덕 성금을 계속 모금합니다 -

- 포덕성금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1구좌 매월 1만원 이상으로 모금합니다.(예 1만원, 2만원, 3만원.....)
- 입금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시킬 경우 예금주는 수운교본부이며, (농협 453116-51-062203)입니다.
-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역/자/모/집/안/내

총무원에서는 교역자로 봉직할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행기간을 거쳐 본부 및 지부, 선교소에서 정위사로 봉직하게 된다.

- 아 래 -

- 모집기간 : 189(2010) 3. 31.까지
- 자 격 : 만20이상 ~ 만60세 미만인자
- 인 원 : 약간명
- 서 류 : 자필 이력서 1통
- 연 락 처 :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403번지 ☎ 042)861-1771

### 남문신장 기도안내

- 일시 : 2010. 3. 22(음 2. 7) 월요일 오후 3시
- 장소 : 도솔천 광덕문

### 공덕미를 납부합니다.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 지부에 납부바람